‘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II)- 1898~1910년을 중심으로*

이 영 아**

– 목 차 –

Ⅰ. 서론
Ⅱ. 젠더의 관점에서 본 근대문학 문화사 태동의 세 국면
Ⅲ. 1890~1910년대 여성혐오의 문화 구조와 의미
Ⅳ. 결론

개 요

이 논문은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문학문화사를 기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이 발표된 이후의 여성문학문화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여성혐오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직 글쓰기의 기회와 방법이 주어지기 어려웠던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신문과 잡지, 소설 등을 ‘읽는’ 일은 여성들의 문학문화영역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첫 단계였다. 교육제도의 확대와 미디어의 확장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체득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의 문학·문화 활동의 두 번째 국면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4563)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leeya@mju.ac.kr)

인 글쓰기의 문화사의 출발점이다. 이때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학교 설립, 구국활동, 여성 잡지 발간 등의 사회 참여 활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들의 실천적 활동이 있었기에 한국근대여성의 문학과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 국면, 문학 작품 창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여성문학문화사에 있어서 '진보'의 과정이라는 해석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글쓰기와 직접행동은 '여성혐오'의 문화구조 속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게 된다. 여성들이 개화, 계몽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권익이 신장되고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그에 대한 반동·위협세력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다시 남성과 동등한 국민이 될 기회를 찾아가며 여성혐오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왔다.

주제어 : 여성문학사, 여성문화사, 한국근대문학, 여성 글쓰기, 여권통문, 여학교, 김덕구 장례식, 여성혐오, 자선부인회 잡지, 국채보상운동

Ⅰ. 서론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문학문화사를 기술하기 위한 작업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이에 앞선 두 작업 중에서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 기존의 여성문학사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는 '연구사 검토'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면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에서는 새로운 여성문학사 기술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1] 이 두

1) 이영아,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제26

논문을 통해 상술했듯, 지체 상태에 처한 현재의 한국 여성문학사 집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연구자들이 독특한 시각 및 방법론으로 여성문학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논쟁함으로써 변증법적 지양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젠더로서의 한국근대문학문화사는 ①현재적 문제의식과 연동될 것, ②협소한 문학사 기술이 되지 않기 위해 ‘수용’의 문학문화사를 포함하고 남성 작가 및 작품 등을 배제하지 않을 것, ③ 당대의 글쓰기와 문화, 여성들의 삶과 운동, 감정, 욕망 등 다양한 여성 문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논증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젠더 문학문화사 방법론의 핵심 개념이 ‘여성혐오’였다.

여성혐오를 통해 문학문화사를 기술하는 것은, ‘여성혐오’가 현재적 이슈라는 점에서, 남성작가들을 배제하지 않고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대한 순응, 저항, 회피 등의 다층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매체와 현실에서 동시에 표출한 1898년의 ‘여학교 설시 통문(이하 ‘여권통문’으로 약칭)’을 제시하였다.[2]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구체적인 문학문화사를 기술해 볼 차례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이 발

권, 2011.12. ;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4호, 2016.11.

2) 여성문학사에 관한 연구사 검토와 방법론은 앞선 두 논문에서 충분히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나 자기표절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선 논문들과 동일한 방법론과 전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젠더의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근대문학문화사’를 총체적이고 일관된 관점으로 서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행 작업은 서론에서 위 두 논문의 결론을 간략히 정리하는 선으로 갈음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위 두 논문을 참조 바란다.

표된 이후의 문학문화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여성혐오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젠더의 관점에서 본 근대문학문화사 태동의 세 국면

일반적으로 여성문학사를 기술한다고 할 때 쉽게 전제하는 것은 여성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문학의 역사라는 생각이다. "여성문학은 여성이 쓰고, 여성의 삶과 인식을 담고 있으며, 여성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여성적인 삶과 인식을 보여주면서 여성적인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둔 작품이라도 남성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3]는 견해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여성문학사' 개념 규정이 놓치고 있는 근대문학문화사 속의 여성들의 역할과 문학·문화 활동의 여러 국면들이 존재한다.

먼저 문학의 주요 독자층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전문학사에서도 최근 주목하는 부분이다.[4] 즉 고금을 물론하고 문학과 문화의 소비자로서의 여성들은 문학문화의 장(場)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일조해왔다.

특히 근대문학문화사에서 중요한 지점은 동시에 같은 글을 읽는 독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대중매체'에 적힌 글을 읽게 되었다는 사실이다.[5] 근대 이전까지는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소규모, 수공업 방식으로 생산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

---

3)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사, 2010, 11쪽.
4)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5집, 2002.12, 251쪽.
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33~34쪽.

후 등장한 신문, 잡지 등은 근대적 인쇄술의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 것이다. 그 덕분에 신문, 잡지는 소수의 특권층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다.

아직 글쓰기의 기회와 방법이 주어지기 어려웠던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신문과 잡지, 소설 등을 ‘읽는’ 일은 여성들의 문학문화 영역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공감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까지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문학문화에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1896년 4월 7일『독립신문』이 한글로 신문을 창간한 것이나[6] 1898년 창간된『제국신문』이 부인들을 위한 신문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했다는 점부터가 근대화와 계몽의 기획에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국문만 잘ᄒᆞ고 다른 물졍과 학문이잇스면 그사ᄅᆞᆷ은 한문만ᄒᆞ고 다른 물졍과 학문이 업ᄂᆞᆫ 사ᄅᆞᆷ 보다 유식ᄒᆞ고 놉흔 사ᄅᆞᆷ이 되ᄂᆞᆫ 법이라 죠션 부인네도 국문을 잘ᄒᆞ고 각ᄉᆡᆨ 물졍과 학문을 ᄇᆡ화 소견이 놉고 힝실이 졍직ᄒᆞ면 무론 빈부 귀쳔 간에 그부인이 한문은 잘ᄒᆞ고도 다른 것 몰으ᄂᆞᆫ 귀죡 남ᄌᆞ 보다 놉흔 사ᄅᆞᆷ이 되ᄂᆞᆫ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 귀쳔을 다ᄅᆞᆷ업시 이신문을 보고 외국 물졍과 ᄂᆡ지 ᄉᆞ졍을 알게 ᄒᆞ랴ᄂᆞᆫ ᄯᆞᆺ시니 남녀 노소 샹하 귀쳔 간에 우리 신문을 ᄒᆞ로 걸너 몃ᄃᆞᆯ간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7]

---

6) 1896년에 시작된 독립협회는 서양의 새 지식과 민주사상을 섭취한 신지식층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중요한 지도자들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의 세사람이었다. 원래 한글신문의 창간계획은 갑오정권에 의해, 특히 유길준에 의해 입안되어 그 실행책임을 서재필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 계획은 아관파천으로 갑오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신정부에 의해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간신문이었으며 독립협회의 운동이 이 뒷받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신용하,『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1976, 5~17쪽.

7)「논설」,『독립신문』, 1896.4.7.

> 獨立新聞者, 先導民衆之本, 而未到婦女子層開明, 故按若刊新聞, 則必決創刊起婦女子啓蒙紙[8]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이듯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함으로써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신문을 기획했으며 그 일원으로서 "조선부인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은 이종일이 자신의 비망록에 남긴 말로, 독립신문이 민중을 선도하기는 하나 부녀자층의 개명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부녀자 계몽을 위한 신문을 간행할 포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7개월 뒤 이종일은 실제로 이 뜻에 따라 『제국신문』(1898년 8월 10일)을 창간하였다.

신문은 초창기부터 여성들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9] 여성들을 억압하는 폐습을 비판하고[10], 여성들의 인권신장[11]과 교육을 주창하였으며[12], 여성들의 일상(가사, 육아 등)에 도움이 될 잡다한 상

---

8) 이종일, 『묵암비망록(默菴備忘錄)』, 1898.1.10.

9) 근대계몽기 신문, 잡지에 실린 여성관련 기사에 대한 정리는 홍인숙의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혜안, 2009에서 매우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10) 「사름은 일반(續)」, 『독립신문』, 1899년 4월 26일 논설, 「조혼지폐」, 『독립신문』, 1896년 6월 6일 논설. 이외에도 「論婚姻」, 『독립신문』, 1898년 2월 12일 논설, 「婚禮之弊」, 『ᄆᆡ일신문』, 1898년 9월 24일 논설, 「早婚之弊」, 『독립신문』, 1899년 10월 7일 논설, 「혼인론」, 『독립신문』, 1899년 7월 20일 논설, 「早婚可戒」,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1일, 「大韓自彊會演說-早婚의 利害」, 『皇城新聞』, 1906년 7월 23일 등이 있다.

11) 내외풍속을 근절하고 여성도 사회로 진출할 것을 주장하는 논설로 「婦人聽敎」, 『만세보』, 1906.7.18 4면,; 「부인교졔ᄂᆞᆫ 학문이 근본됨」, 『제국신문』, 1905년 6월 17일 奇書, 6월 19일 논설(續), 「부인샤회의 활동」, 『제국신문』, 1906년 7.12 논설 등이 있고, 여성을 집 안에만 가두어 두는 압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학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설은 「哀呼我女」, 『독립신문』, 1896. 4.21. 논설, 「셰가지 우ᄆᆡᄒᆞᆫ 일」, 『독립신문』, 1899년 5월 31일 논설 등이 있다.

12) 「녀학교론」,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논설, 「女子亦宜敎育事爲」, 『皇

식들[13]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생, 연극장 출입 부인 등을 흥밋거리로 삼거나 여성들의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서도 종종 고발하며 여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도 존재했다.[14] 여성들은 신문을 읽는 주체로서도 신문에 의해 읽히는 객체로서도 중요한 존재였다.

한편 여성 교육기관이 1886년 이화학당 설립부터 시작하여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정동여학당-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1887), 영화여학교(1892), 배화여학교(1898), 명신여학교(1898) 등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것은 '신문에 글을 쓰는 여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근대 일본의 경우와도 유사하다.[15] 일본에서 근대 신문 독자층으로 여성이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음을 상론한 히라타 유미의 『여성표현의 일본근대사』에

城新聞』, 1900년 4월 9일 논설, 「女學宜興」,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8일 논설, 「관립녀학교를 셜치 안이치 못홀일」, 『제국신문』, 1906년 4월 10일, 11일 논설,「女學校演說」,『萬歲報』,1906년 6월 17일, 「女子教育의 方針」, 『大韓每日申報』,1910년 9월 16일 논설, 「婦人開明一女子教育會」, 『萬歲報』 1906년 7월 8일 논설, 「婦人開明」, 『萬歲報』, 1906년 7월 8일 논설, 「男女教育」,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논설, 「女兒教育」,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논설, 「녀인교육」,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논설, 「急女人教育」, 『제국신문』 1901년 4월27일 논설, 「여자교육」, 『제국신문』, 1901년 4월 5일 논설, 「女子教育必要」, 『大韓日報』, 1906년 6월 1일 등.

13) 「어린ᄋᆞ히가 ᄆᆡ양 간긔병으로 신고홈이 만ᄒᆞᆫ지라」, 『독립신문』, 1897.8.19, 「어린ᄋᆞ히교육론」, 『제국신문』, 1899년 2월 24일 논설, 「가뎡주의」, 『대한매일신보』, 1908.3.12. 「인ᄉᆡᆼ의 미리 힘쓸일」, 『대한매일신보』, 1907.9.8.

14) 「姦妾如獸」, 『ᄆᆡ일신보』, 1898년 9월 16일, 「失行烈女」,『大韓日報』 1904년 9월 4일, 9월 8일, 「淫女之行」, 『皇城新聞』1906년 4월 7일 등의 기사는 간음한 여성에 대한 혹독한 비난을 하고 있으며, 「嚴懲淫女」, 『ᄆᆡ일신보』, 1898년 9월 21일, 「逃女處絞」, 『ᄆᆡ일신보』, 1898년 9월 21일, 「淫婦割鼻」, 『만세보』, 1906년 7월 17일 등의 기사는 간음한 여성의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5) 히라타 유미, 『여성표현의 일본근대사』, 임경화 역, 소명출판, 2008.

서는 일본 근대여성문학의 시작이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가 주류 남성 문단에 의해 인정을 받은 1890년대 중반 이후라는 종래의 논의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치요 이전부터 여성 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문과 학교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치요 이전인 1870~80년대 일본 신문, 잡지에 실린 투서, 투고에 이미 읽고 쓰는 여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확대와 미디어의 확장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체득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 잡지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투고의 기회를 줌으로써 독자층으로의 정착을 독려하는 한편 공적인 글쓰기에 여성을 참여시킨 것 역시 글 쓰는 여성을 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경을 자셰이 긔록ᄒᆞᆯ터이요 정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 정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일을 얼만콤식 이신문샹 ᄆᆡ일 긔록홈 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 ᄒᆞᆫᄃᆞᆯ에 십이젼 ᄒᆞᆫ쟝에 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 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말이 잇든지 셰상사ᄅᆞᆷ의게 ᄒᆞ고스분말잇ᄉᆞ면 이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쩨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옴 한문으로ᄒᆞᆫ 편지ᄂᆞᆫ 당초에 샹관아니홈 16)

> 본샤에셔ᄂᆞᆫ 아모됴록 신문을 널니 젼파ᄒᆞ야 국민의 이목을 ᄉᆡ롭게 ᄒᆞ자ᄂᆞᆫ 쥬의기로 특별히 갑슬 적게ᄒᆞ며 아모됴록 신실히 젼ᄒᆞ여 신문 보시ᄂᆞᆫ 이들노 ᄒᆞ여곰 편리토록 ᄒᆞᆯ터인ᄃᆡ ᄂᆡ외국 시셰 형편을 따라 긴요ᄒᆞᆫ 소문과 학문샹에 유죠ᄒᆞᆯ만ᄒᆞᆫ ᄉᆞ건을 들어 론실과 관보와 잡보와 외국통신과 뎐보와 광고등 여러 가지를 소샹히 등ᄌᆡᄒᆞ야 공평 ᄒᆞᆷ으로 목적을 삼고 밋븜으로 쥬장ᄒᆞ야 ᄒᆞᆫᄃᆞᆯ 동안에 네쥬일외에 날마다 발간ᄒᆞ되...(중략)

16) 「광고」, 『독립신문』, 1896.4.7.

> 누구던지 신문에 긔록홀 ᄉᆞ건이 잇거든 소샹히 적어 본샤 투함통에 너으시되 거쥬와 셩명이 분명치 아니ᄒᆞ면 ᄂᆡ이지 아니홀터이오[17]

위처럼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창간 일(1896년 4월 7일/1898년 8월 10일)부터 신문독자들에게 문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신문사로 투고할 것을 권하면서, 그 중 ‘신문에 낼만한 말’, ‘신문에 기록할 사건’은 직접 신문에 게재도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등장한 ‘婦女童蒙’을 위한 신문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창간호(1874년 11월 2일)에 게재한 투서 권유의 「알림」으로 “이 신문지는 女童의 가르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쓰고자 하오니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문장을 이야기처럼 써서, 성함과 주소를 기입하여 투서를 앙망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힌 것[18]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하여 여성들은 신문을 읽고, 신문에 글을 써서 보내는[19] 능동적 독자로서 훈련되어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20] 이것이 여성들의 문학·문화 활동의 두 번째 국면인 글쓰기의 문화사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권통문’이 결국 여학교 설치라는 실천을 목적으로 쓴 글인 것처럼, 초창기 여성의 글쓰기는 주로 사회참여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

---

17) 「광고」, 『뎨국신문』, 1898.8.10.

18) 히라타 유미, 앞의 책(2008), 18~19쪽.

19) “여자가 신문을 읽는다는 사태가 문명개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신문에 글을 쓰는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히라타 유미, 앞의 책(2008), 25쪽.

20) 여권통문에 대한 상론은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3, 2장 및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참조.

현한다는 것은 교육과 독서를 통해 깨우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했다.

> 경샹도 연일사던 안소ᄉᆞ 연희씨가 녀학교쟝 양현당 김씨를 위ᄒᆞ야 부의젼 이원과 글을지어 보ᄂᆡ엿기로 자에긔ᄌᆡ ᄒᆞ노라
> 져동 류 안연희는 양현당김씨 령연지하에 고ᄒᆞ나이다 오호통ᄌᆡ며오호ᄋᆡᄌᆡ라 ᄂᆡ가 김씨의면목은 부지오나 놉흔 셩명 들엇도다 녀학교를 창셜ᄒᆞ니 ᄉᆞ천년에 처음이오 녀학도를 모집ᄒᆞ고 한문교ᄉᆞ 고빙ᄒᆞ야 열심으로 교육ᄒᆞᆯ ᄯᅢ 한문국문 침션녀공 셩취ᄒᆞᆫ쟈 잇다ᄒᆞ니 그아니 쟝ᄒᆞ시오 학도들이 빈한키로 먹여가며 ᄀᆞᆯᄋᆞ칠 제 경비가 말유ᄒᆞ야 탕ᄑᆡ가산 불샹ᄒᆞ고 학비를 쳥구ᄎᆞ로 학원들을 거나리고 학부졔진 몃십ᄎᆞ에 소원이 불셩ᄒᆞ니 억울ᄒᆞᆫ일 가이업다 작년일을 들어보니 일공ᄉᆞ 아공ᄉᆞ는 십오원식 보죠로ᄃᆡ 우리나라 남ᄌᆞ들은 돈불고견 무심ᄒᆞ니 외국에 슈치로셰 [21]

> 근쟈에 귀샤 신문 일쟝을 힝득하와 보오니 그 ᄉᆞ의가 공평셩대ᄒᆞ야 셰계ᄉᆞ졍을 력력히 긔재함과 애국ᄉᆞ상을 흥긔케 권고ᄒᆞ고 국민의 지식 발달 권도ᄒᆞᄂᆞᆫ 졍셩을 한번 보ᄆᆡ 이위 보던 고담칙의 허탄ᄒᆞ를 가히 씨닷깃난 쟈라. 이것을 ᄌᆞ조 득소 오ᄅᆡ 보와스면 안즌방이와 쟝님의 병신 칙망을 십분지일이나 면ᄒᆞᆯ가 료량ᄒᆞ와 위션 륙삭 션금 지젼 이원 십젼을 동봉부뎡ᄒᆞ오니 조량ᄒᆞ신후 특별히 애휼ᄒᆞ시는 셩녕으로 편지 당도ᄒᆞᄂᆞᆫ ᄂᆞᆯ노 위시ᄒᆞ와 귀신문 일쟝식 하송ᄒᆞ시기 복망ᄒᆞᆷ.[22]

> 우리대한 뎨국신문이 업셔지면 우리 이쳔만인의 귀와 눈이 업셔지옴이라 (...) 이졔 뎨국신문의 지팅키 어려옴을 ᄉᆡᆼ각ᄒᆞ옴이 흉격이 막히고 심신이 흣허져 일시를 보젼치 못ᄒᆞ겟ᄉᆞ오니 (...)우리 형뎨쟈ᄆᆡ쎄셔ᄂᆞᆫ 첫ᄌᆡᄂᆞᆫ 나라를 ᄉᆡᆼ각ᄒᆞ시고 둘ᄌᆡᄂᆞᆫ 뎨국신문을사랑ᄒᆞ시고 셋ᄌᆡᄂᆞᆫ 일졍을 불샹히 녁이샤 뎨국신문을 닷토어 보시며 아모조록 뎨국신문의군졸ᄒᆞᆫ ᄌᆡ졍을 도으샤 대한

---

21) 「吊女教長書」, 『제국신문』, 1903.3.20.
22) 「有志婦人」, 『제국신문』, 1907.4.3.

> 국민의 일분ᄌᆞ된 일졍의 말을 져바리시지 안으시면 국가에 다힝홈이오 인민에 다힝 홈이라ᄒᆞ노이다.[23]

여성들은 매체를 통해 여성을 위한 제도, 기관, 단체를 후원하며 그 뜻을 글로 보내왔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의 ‘녀학교장 양현당 김씨’는 ‘여권 통문’의 주요 작성자(이양성당, 김양현당)[24] 중 한 명이다. 김양현당은 여학교 설립을 위해 매우 활발히 활동했으며[25], 정부의 협조가 미온적이자 자비를 털어가며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병이 들어 1903년 갑자기 사망한 사실이 신문 상에 알려지자 한 여성 독자가 부의금과 애도문까지 보내온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처럼 신문발간에 고마움을 표하며 구독신청을 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한다든가[26], 세 번째 인용문과 같이 1907년 9월 제국신문이 폐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준 열사의 부인 이일정이 제국신문을 살리자는 권고의 글을 투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가며 글을 쓰고 있다.[27] 즉

---

23) 「(긔셔)리일졍(李一貞)」, 『제국신문』, 1907.9.11.

24) ‘여학교 설시 통문’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대한 광무 이년 구월 일일 통문 고표인 리소ᄉᆞ 김쇼ᄉᆞ”에서 리소ᄉᆞ가 이양성당, 김쇼ᄉᆞ가 김양현당이다.

25) 김양현당이 여학교 설립 및 학교 운영을 위해 했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신문에서도 꽤 자주 다루어졌다.; 「부인ᄀᆡ회」, 『독립신문』, 1898.9.27.; 「부인ᄀᆡ회(젼호련)」, 『독립신문』, 1898.9.28.; 「女學請願」, 『皇城新聞』, 1899.2.7.; 「女校再請」, 『皇城新聞』, 1899.6.8.; 「兒娘能讀」, 『皇城新聞』, 1899.10.3.; 「女校經費의 請支」, 『皇城新聞』, 1900.1.24.; 「승동 녀학교장 양현당 김씨」, 『제국신문』, 1900.2.27.; 「女子亦宜敎育事爲」, 『皇城新聞』, 1900.4.9.; 「校舍典日」, 『皇城新聞』, 1901.9.14. ; 「女黌沒名」, 『제국신문』, 1903.3.19.

26) 「感淚先咽」, 『제국신문』, 1907.6.26.

27) 한국 근대 초기 신문의 여성독자투고에 대한 연구로는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8집, 2004.6.;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신소당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6. ;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등 참조.

여성들로서는 공적인 공간에 글을 쓰는 것과 사회를 위한 실천을 하는 일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여성들의 '실천적 글쓰기'의 양상은 한국근대문학문화사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만한 것들이다.

이를 위해 1898년부터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여성들의 대외 활동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당대의 여성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의 운명 앞에서 학교를 세우고, 패물과 쌀을 팔고, 공부를 하고, 연설과 토론을 하고, 글을 써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 '여권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서울 북촌 양반 부인 400여 명을 중심으로 한 찬양회 회원으로서 관립여학교 설립 청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미온적인 정부를 대신해 과도기적 형태로서 순성여학교를 세워 어린 여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중년 부인들을 위하여 생활개선과 자각을 촉구하는 계몽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갔다.

나아가 찬양회 여성들은 정치적 동등권 획득의 실천으로서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하였다. 그런데 만민공동회가 민주주의를 외치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기 위한 어용단체로서 황국협회가 만들어졌는데, 황국협회의 보부상단들이 만민공동회 회원들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 11월 22일 독립협회 회원이자 신기료 장수인 김덕구가 중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애도와 항의의 표시로 만민장으로 치러진 김덕구의 장례식에는 찬양회의 부인회원 120여 명과 정동교회 및 이화학당의 여성 다수가 참여했다.[28] 이 장례식의 여성 참가자들이 제문을 지어 노제(路祭)하고 찬미가를 불러 호상(護喪)했다는 사실은 독립신문, 제국신문 등에서도 자세히 다뤄졌다.[29] 사회장의 성격을 띤 장례일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행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실은 한국의 개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0] 그러나 이 행사에

28)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7~60쪽.
29) 「의수장례」, 『독립신문』, 1898.12.2. ; 『제국신문』, 1898.12.3.

대한 보수 어용 세력들의 비판과 협박, 그리고 여성혐오적 발언들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위축되는 면이 있었다.

한편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여성교육운동은 1905년 이후 일제의 한국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민족운동세력들이 추진하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다시 속개되었는데, 이를 '2차 여학교 설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결성된 여성단체로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양정여자교육회, 대한여자흥학회, 한일부인회, 자선부인회, 동양애국부인회, 자혜부인회 등이 있었다.[31] 이 중에서 여자교육회는 독립협회 등에 참여했던 선각자 남성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권통문 시기의 여성단체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이 단체에서는 양규의숙을 설립해 후원했는데 여학교임에도 숙장(塾長), 숙감(塾監)이 모두 남성이었고, 교사들도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여성인 교사는 단 두 명이었다. 또한 임원도 부총무인 이일정당을 제외하고는 남성들뿐이었으며 평의원은 저명인사 남성들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올라가고, 10여 명의 남성 저명인사들을 여자교육회를 지도할 상층기구인 '남자찬무소(贊務所)'의 구성원으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여자교육회는 남성들이 주도하고 여성들은 따르는 구조의 단체였다는 점에서 1898년보다 여성의 자발적, 독립적 활동의 의미가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06년 7월부터 1907년 7월까지 행한 총 25회의 연설 및 토론회의 의제로 여성 및 유아교육, 衣冠制 개량, 내외법 폐지, 부인 산업·공업 개발 등을 다루고 강연자는 주로 남성이었지만 토론은 여성들이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여자교육회가 양규의숙을 포기함으로써 양규의숙이 재정난에 처하자 이를 유지, 진흥시키기 위해 신소당(申蕭堂), 최화사(崔花士), 박영자(朴英子)등에 의해 설립된 진명부인회[32]

30) 박용옥, 『한국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275쪽.
31) 이 중에서 한일부인회 이하는 친일 여성단체들이었다.; 위의 책, 349쪽.

는 다시 여성들의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여자교육회의 친일적, 남성적 색채에 반기를 들었던 여자교육회 구성원들도 다수 참가하였다.[33] 진명부인회의 실질적 운영자인 신소당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 광동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에는 국채보상부인회를 조직해 여성계의 국채보상운동 총본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인물이다.[34]

한편 대한부인회는 을사 5적 중 한 명인 이지용(李址鎔)의 처 이옥경(李玉卿)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단체로서 특히 여성들의 실업교육에 힘써 양잠강습소를 설립하고 양잠교육을 강화, 확대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여성정책의 일환의 성격을 띤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여성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직업능력,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는 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옥경은 앞서 말한 여자교육회에서도 총재를 맡은 바 있으며 1908년 4월 『녀ᄌᆞ지남』이라는 여자교육회의 회지(會誌) 혹은 여자보학원(女子普學院)의 월보 성격을 띤 여성 잡지 간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잡지, 특히 부인회지의 창간은 여성들이 연대와 교류를 통해 함께 대외 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발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었다. 시작은 여성들을 '위한' (남성들의) 잡지였지만 차츰 여성들 스스로 집필하고 간행하는 경지로 나아갔다. 『녀ᄌᆞ지남』에 앞서 창간된 『가뎡잡지(家庭雜誌)』(1906)의 경우 발행인인 신채호를 비롯하여 신민회 회원을 중심으로 간행되었고 대부분의 필진이 유일선, 주시경, 전덕기, 김병현, 양기탁 등 남성들인 데 반해, 『녀ᄌᆞ지남』은 사장 윤치오의 「녀ᄌᆞ지남월보취지셔」나 박은식의 「여자보학원유지회취지서」, 그리고 다수의 유명 인사 남성들의 축사가 적혀있기는 하나 본문은 이옥경을 비롯하여 김운곡, 최학암, 박사라, 이강자, 김일은, 김영자, 양성운, 김이

32) 「婦人進明」, 『皇城新聞』, 1907.4.25.
33) 「進明婦人開會式盛況」, 『皇城新聞』, 1907.6.17.
34) 박용옥, 앞의 책(2001), 352~353쪽.

자, 청송강 등의 여성들의 글과 여학생들의 작문[35]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남성들의 자본이나 경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콘텐츠 생산에서는 여성들도 중심 역할을 했던 잡지가 『녀ᄌᆞ지남』인 것이다.

1908년 8월에 창간된 『자선부인회 잡지』도 편집인은 최찬식이지만 필자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잡지 내의 '서화모집광고'에서도 '다만 녀ᄌᆞ에만 한함'이라는 투고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필진과 책의 내용이 명실상부하게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잡지"[36]라 할 만하다. 이 잡지는 엄황후과 후원을 하고 차천경, 신현자, 여메례황 등이 이끌었던 자선부인회에서 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여성을 위한 첫 잡지인 『가정잡지』는 남성 필자들이 여성들을 계몽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녀ᄌᆞ지남』은 편집진과 필진에 남녀가 섞여있는 형태이고, 『자선부인회 잡지』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개화, 계몽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37] 여성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여성 잡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1910년대의 『공도』(1914.10~1915.3)나 『여자계』(1917.6.~1920.6) 등의 창간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덧붙여 『자선부인회잡지』의 여성문학문화사적 중요성은 그동안 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않은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이 잡지 창간호에 '소설'이 들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간 언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설'이라는 제호 아래 '심농ᄉᆡᆼ'이 쓴 「약노금」이라는 제목의 연재소설이 실려 있다. 『자선부인회잡지』가 앞서 말한 대로 모두

35) 이 잡지에서는 '부인 김운곡', '녀학도 리영진' 식으로, 여성 필자의 이름 앞에 '부인', '여학도'라는 말을 붙여 놓아 여성 필진들이 쓴 글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자선부인회와 『자선부인회잡지」, 『한국여성관계자료집-한말여성지』, 이화여대 출판부, 1981, 81쪽.

37) 다만 여자교육회나 자선부인회가 친일적 색채를 띤 여성단체였다는 점에서 이 잡지의 논조나 세계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필진이 쓴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심농싱'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잡지가 창간호 이후 발간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의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이 소설에서 늙고 병든 노모, 효성이 깊은 아들 '리화국', 그리고 리화국을 데리러 온 '김승지 댁 춘단이'를 묘사하는 대목이 섬세하고 사실적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한국근대 여성작가 작품의 출발점으로 흔히 거론되어 왔던 김명순, 나혜석의 소설보다 9년 앞서는 것으로서 여성문학문화사 서술에서 재논의를 요하는 중요지점이라 할 수 있다.[38] 여성작가 최초의 소설작품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필명 '심농싱'은 누구인가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학계에서 좀 더 조사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의 결성도 한국근대여성문학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은 여성혐오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침체되려 하였던 여성의 사회참여와 글쓰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빚진 국채 1300만원을 갚아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채보상운동론'이 제기되었을 때, 여성들이 자신들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하기 시작했다.[39] 그리하여 대구

---

38) 지면 관계상 이 소설에 대한 상론은 이영아, 「'女性嫌惡'의 文學文化史(III) -1900년대 文學文化의 '호모소셜리티'와 女性嫌惡」, 『語文硏究』173호, 2017. 3 참조.

39) "牙山郡居ᄒᆞᄂᆞᆫ 一夫人이 帝國新聞社에 寄函이 如左ᄒᆞ니 본人이 現自鄕第로 來覲親庭이옵다가 貴新聞을 奉讀ᄒᆞ오ᄆᆡ 憂國하시ᄂᆞᆫ 僉君子계옵셔 國債報償에 對ᄒᆞ야 勸諭同胞허와 募集義금ᄒᆞ시ᄂᆞᆫ 盛擧가 有ᄒᆞ오니 본인이 雖是一箇閨中女子이오나 固亦大한國民之一이온즉 彝性所發에 感淚自零이오나 家計淸貧에 力不逮誠하와 僅將한貨二十元ᄒᆞ야 仰呈于貴社하오니 鑒此微忱하오셔 考納하심을 伏望하옵나이다하얏ᄂᆞᆫᄃᆡ ᄒᆡ夫인은 主殿院경梁性煥씨의 令孃으로 牙山白岩居리씨宅에 出嫁하야 早寡餘生으로 二子를 敎養하야 至於成立하니 懿行夙著하고 大義에 素明ᄒᆞᆫ이라더라"; 「夫人愛國」, 『大韓每日申報』, 1907.2.26.; "從二品元世性氏의 夫人南宮氏가 國債報償事에

남일동의 7명의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할 방법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격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채보상부인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방식이 보다 구국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헌신하는 데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남녀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의 명분으로서 ‘救國’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국채보상부인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1890년대 중반부터 1910년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문학문화사의 큰 결절 지점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1890~1910년 한국 여성의 문학문화사적 주요 사건

연대	사건	관련 인물
1896	『독립신문』, 『제국신문』 창간	
1898. 9. 1.	1차 여학교 설립운동, 「여권통문」	이양성당, 김양현당, 이창길당, 고정길당
1898. 11. 22.	찬양회 회원 및 정동·이화학당 여학생들의 보부상 김덕구 장례식 참여	찬양회, 이화학당 여학생
1899. 2.	최초 민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	김양현당(교장), 고정길당(교원)
1905	2차 여학교 설립운동, 통상회 개최	여자교육회(남성주도), 진명부인회(신소당), 대한부인회(이옥경) 등

對ᄒᆞ야 新貨三十錢을 판備ᄒᆞ야 農圃동支社의 交附ᄒᆞ얏다더라”; 「夫人義助」, 『大韓每日申報』, 1907.3.6.

1906.6	『家庭雜誌』 창간	신민회 남성 필진 중심 발간
1907	국채보상 여성단체 결성(「경고아부인동포라」, 「탈환회 취지서」발표)	신소당, 박우리바, 여누이사 등
1908	최초의 관립 고등여학교인 한성관립고등여학교 설립(「여성교육휘지」발표)	엄황후(대한여자흥학회),윤정원, 홍정자, 윤고라(교사)
1908.4.	『女子指南』(여자보학원 월보) 창간	여자교육회/여자보학원 유지회, 남녀 필진 공존
1908.8.	『자선부인회 잡지』 창간	여성필진 중심 발간

요컨대 1898년 여권통문을 발표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학교 설립, 구국활동, 여성 잡지 발간 등의 사회 참여 활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들의 실천적 활동이 있었기에 한국근대여성의 문학과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문 읽기, 글 배우기, 독자투고, 사회참여로 이어진 여성들의 글쓰기는 문학작품의 창작에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세 번째 국면, 문학 작품 창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Ⅲ. 1890～1910년대 여성협오의 문화 구조와 의미

1890년대 이후 한국근대문학문화사 속에서 여성협오의 담론 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문으로 된 대중매체가 등장하며 여성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직접행동으로서 여학교를 설치하거나 부인회를 결성

하고 국채를 갚는 일 등에 앞장섰으며 그 사실을 글쓰기를 통해서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글쓰기와 직접행동은 한편으론 귀감이 될 만하다면서 칭송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잘난’ 여성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여권통문이나 여학교 찬양회의 초기 활동, 신소당이나 윤정원 같은 초창기 여성 논객들의 글에서부터 여성혐오의 복잡한 맥락이 발견된다. 당시 남성-언론은 찬양회의 활동에 대해 한편으론 상찬과 응원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들의 행사에서 사치, 허영, 무질서 등을 발견하려 애썼다. 남성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하’[40]다거나 ‘회쟝이 ᄯᅩ 이러나셔 연셜을 ᄒᆞ니 쾌쾌ᄒᆞᆫ 말과 격당ᄒᆞᆫ 말이 다 학문 쇽에셔 나와 언언 ᄉᆞᄉᆞ이 시톄에 ᄆᆞᆺ고 ᄎᆞ뎨와 죠리가 털ᄭᅳᆺ도 챠착이 업시며 시ᄉᆞ를 의론 ᄒᆞᄂᆞᆫᄃᆡ 듯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모도 흠탄들 ᄒᆞ’[41]는 모습은 남성들의 여성의 ‘성장’에 대한 지지의 뜻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인회의 활동 방식에서 꼬투리를 잡고 ‘부인 회원들이 ᄀᆡ명에 대단히 유의 ᄒᆞᆫ다 ᄒᆞ기에 우리ᄂᆞᆫ 십분 흠모 ᄒᆞ얏더니 요ᄉᆞ이 이 쇼문을 드른니 우리ᄂᆞᆫ 그 회의 명예을 위 ᄒᆞ야 대단히 ᄋᆡ셕 ᄒᆞ노라’라며[42] 우려를 표현하는 글들에선 부인회의 순수성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한다.

‘여권통문’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부인회 회장이었던 이양성당은 여권통문 이후에도 북촌 재상의 부인 및 별실들과 함께 부인회를 조직하여 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43] 기록이 있으나 이창길당에 대해서는 그 이후 기록이 남아있

40) 「별보」, 『황성신문』, 1898.9.8.
41) 「부인ᄀᆡ회(젼호 련쇽)」, 『독립신문』, 1898.9.28.
42) 「부인회 쇼문」, 『독립신문』, 1898.12.7.
43) 「부인회 ᄯᅩ 죠직」, 『독립신문』, 1898.12.5.

지 않다. 그리고 김양현당과 고정길당은 최초의 민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설립해 교장과 교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김양현당은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하던 도중 병사하고 말았고, 고정길당은 러시아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이나 얼마 못가 학교를 그만 두고 양요리점을 차리는 등의 행보로 신문에서는 가십거리로 여기는 시각이 더 강했다.[44]

남성들이 여성혐오를 만들어내게 된 심리구조적 배경은 '불안'과 '공포'이다. 여성혐오는 지배세력인 남성이 여성들의 성장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낄 때 더 강하게 발현된다. 자신에게 동물성, 오염, 유한성 등에 대한 공포를 환기시키는 존재로서 여성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즉 여성들이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 남성들은 여성을 더 강하게 혐오한다. 따라서 여성혐오의 역사는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측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장' 및 '저항'(과 아울러 '공모')의 측면도 드러낸다. 여권통문으로 시작된 여성들의 의식 성장과 사회 참여의 확대는 개화된 남성들이 원하던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류-남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침범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여성에 대한 도덕성 비판, 성차별적 비하, 성적 대상화 등의 형태로 표출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혐오'이다.[45]

그런데 김덕구의 장례식에서는 여성혐오의 문제가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98년 12월 1일 치러진 김덕구의 장례식 이후 신문들은 이 행사에 참여한 민중들의 면면을 연일 보도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 행사가 가진 민족적, 민중적 가치를 조명하려 했다.

(전략)대한 광무 二년 十二월 쵸一일 오전 九시에 공동회 만민

---

44) 박용옥, 『한국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348쪽.
45) 한국근대문학문화사를 여성혐오의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며 유의미한 일이라는 사실은 이영아, 앞의 글(2016)에서 상론한 바 있다.

과 젼국 二千万 동포의 대표된 독립 협회 회원들이 죵로로 모혀 김씨의 신톄 엄토ᄒᆞᆫ 쌍룡졍으로 나가셔 뎨문을 즁힝 ᄒᆞ야 쇼렴 대렴 ᄒᆞ고 입관 ᄒᆞ야 큰 상여로 운샹 ᄒᆞ야 쟝ᄉᆞ 지낼 산디로 향ᄒᆞ여 발인을 ᄒᆞᄂᆞᆫᄃᆡ (…)동 셔양 각국에 졈즌ᄒᆞ 손님들도 김씨의 츙의에 죽은것을 모도 흠인 ᄒᆞ야 다 와셔 보며 본국 남녀로 쇼 샹하 귀쳔 아동 쥬졸이 구름 ᄀᆞᆺ치 모혀 거리 거리 길이 메이ᄂᆞᆫ지라 (…)남대문밧 련못 가을 당도 ᄒᆞ니 차일을 놉히 치고 졍구쇼(停柩所)를 빅셜 ᄒᆞ엿ᄂᆞᆫᄃᆡ 쳐음에 영어 학교 퇴학ᄒᆞᆫ 학원들이 뎨물을 셩비 ᄒᆞ야 뎨문 지여 로뎨 ᄒᆞ고 그 다음에ᄂᆞᆫ 찬양회 부인 회원들이 또ᄒᆞᆫ 뎨물을 셩비 ᄒᆞ야 로뎨 ᄒᆞ고 그 다음에 샤립 흥화 학교 교원들이 뎨물을 셩비 ᄒᆞ야 뎨문 지여 로뎨 ᄒᆞ고 그 다음에 리화 학당 교 ᄒᆞᄂᆞᆫ 부인들이 찬미가를 ᄒᆞᄂᆞᆫᄃᆡ 비록 목셕이라도 츙의 두 글ᄌᆞ를 감동치 아니치 못 ᄒᆞᆯ너라 로뎨를 다 ᄒᆞᆫ 후에 뎡구쇼에셔 써나 남단 압 갈월리 산디로 향 ᄒᆞᄂᆞᆫᄃᆡ 샹여 뒤에 싸라 가ᄂᆞᆫ 인원즁 찬양회 부인들은 ᄉᆞ인교와 쟝독교를 탓ᄂᆞᆫᄃᆡ 광치가 더옥 찬란 ᄒᆞ더라(하략)[46]

ᄌᆡ작일에 김덕구씨 장샤에 뎡동리화 학당 부인들이 남문밧게 나가셔 찬미가를 부르며 호상ᄒᆞ엿다 ᄒᆞ고 각 학교 학도들도 졔뎐을 들이고 찬양회 부인들은 일빅 이십여명이 ᄉᆞ무소로 모여 나오랴ᄂᆞᆫ 거슬 두목 몃몃 부인만 총ᄃᆡ로 나왓더라ᄂᆞᆫᄃᆡ 찬양회 회쟝은 의장등물을 팔어셔 김씨 장ᄉᆞ에 보조 ᄒᆞ엿다고 치하가 분분ᄒᆞ다더라[47]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일일이 기록하며[48]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9일 기사에서

46) 「의ᄉᆞ쟝례」, 『독립신문』, 1898.12.2.
47) 『제국신문』, 1898.12.3.
48) 그런데 「의ᄉᆞ장례」에서 “뎨문과 축문들은 지면이 협착 ᄒᆞ기로 ᄎᆞ호에 긔ᄌᆡ ᄒᆞ겟노라”라며 그 다음날부터 장례식에서 발표되었던 제문, 축문들이 차례차례 게재되었으나 여성단체들의 제문, 축문은 게재된 바가 없다. 대신에 12월 5일에는 새롭게 조직된 이양성당 중심의 부인회 결성 소식이 실렸고, 12월 7일에는 「부인회 쇼문」이라는 제목으로 부인회 구성원들이

부터는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 어용 단체인 황국협회 측의 보부상단의 우두머리 홍종우, 길명수, 박유진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정동교회 등에 협박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49] 기독교 학교 학생 및 교인들에게 '양인을 스승으로 삼고, 천주교를 배우는 것'을 공맹의 도를 어겼다며 비판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심기가 불편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미국공관에서는 그 편지를 조회하고 홍종우 일파를 경무청에 체포시키는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볼 것은 이 협박의 편지가 여성혐오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홍종우 일파는 배재학당이나 정동교회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지만 당시 찬양회 부인 등도 참여했음에도 아래의 첫 번째 인용문과 같이 이화학당 여학생들을 특정하고 '너희를 다 함몰하리라'고 협박하는 것은 이들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학생들로선 이들의 협박편지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화학당은 아래 두 번째 인용문과 같이 김덕구 장례식 때 찬미가를 불렀던 것이 자신들의 학교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되었다.

> 홍종우 길영수 박유진씨등에 일홈으로 배지학당에 편지ᄒᆞ기를 너희 학도들이 공밍에 도를 배반ᄒᆞ고 눈이 깁고 코이 놉흔 놈에 학문을 숭상ᄒᆞᆫ다 ᄒᆞ며 리화학당에 편지ᄒᆞ기를 역적 김덕구 죽은 데 게집들이 모여가셔 찬양ᄒᆞᄂᆞᆫ거시 도리가 아니라 일향 그러ᄒᆞ면 너희를 다 함몰ᄒᆞ리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편지가 미국공관에 가셔 외부에 죠회가 왓다더라[50]

> 리화 학당 셜명) 뎌번에 대한 의ᄉᆞ 김덕구씨 쟝ᄉᆞ ᄒᆞ랴고 운

빈부에 따라 회원들을 차별한다는 소문을 실렸다. 이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차츰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9) 「길홍박 쇼문」, 『독립신문』, 1898.12.9.

50) 『제국신문』, 1898.12.9.

> 샹 ᄒᆞ야 남대문밧 련못 가으로 지낼적에 리화 학당에서 교 ᄒᆞᄂᆞᆫ 부인네들이 김씨의 샹여 졍구쇼에셔 찬미가로 긔도 ᄒᆞ엿다고 본샤 신문 잡보에 긔ᄌᆡ ᄒᆞ엿더니 지금 드른즉 그 부인네들은 교 ᄒᆞᄂᆞᆫ 부인이여 그러 ᄒᆞ되 리화 학당에셔 교 ᄒᆞᄂᆞᆫ 부인네들은 아니라 ᄒᆞ기에 이에 셜명 ᄒᆞ노라[51]

이화학당에서 이러한 해명을 한 이유는 이화학당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를 안해서라기보단 아마도 홍종우 일파가 교인들을 ‘도륙하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서[52]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화학당 학생들이 장례식에 참가했던 것이 사실임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홍종우 일파에게 반박의 글을 보내 온 한 기독교인의 편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화학당 학생들의 예법이나 기도 방식, 식견이나 행실 등은 그릇되었던 바가 전혀 없었다며 적극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화학당 학생들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독립신문』의 정정보도가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 엇더ᄒᆞᆫ 교인이 부상 도반슈 길영슈등이 교도의게 ᄒᆞᆫ 편지를 셜명ᄒᆞ여 본샤에 보내엿기로 그글을 좌에 긔ᄌᆡ ᄒᆞ노라 (…) 편지에 ᄯᅩ 골ᄋᆞᄃᆡ 리화학당 교인들이 규문의 례법을 아지 못ᄒᆞ고 그릇 뎌됴에 드러가 역당 김덕구 쟝ᄉᆞ에 길에셔 져쥬ᄒᆞ다 ᄒᆞ엿스니 리화학당 녀 교인은 당초에 길에셔 져쥬ᄒᆞᆫ 일도 업거니와 이거슨 규문의 례법이 무엇신지 져쥬가 무엇신지 아지도 못ᄒᆞᆷ이니 여름에 벌러지가 어름의 찬거슬 아지 못ᄒᆞᆷ과 ᄀᆞᆺ도다 규법

---

51) 「리화 학당 설명」, 『독립신문』, 1898.12.9.

52) “대한 빅셩이 무슴 ᄆᆞ음으로 양인을 스승 ᄒᆞ야 텬쥬교를 빅호며 부인들은 규즁 법례를 아지 못 ᄒᆞ고 그릇 뎌 도에 들엇스니 진실노 한심치 아니 ᄒᆞ랴 우리 부샹들은 샹무를 확실케 ᄒᆞ니 우리 빅셩된ᄌᆞ 이것을 바리고 어ᄃᆡ로 가리요 이런 츄곡ᄒᆞᆫ 말을 ᄒᆞ노니 남녀 교인은 곳 어두은것은 바리고 ᄇᆞᆰ은ᄃᆡ로 나아온즉 말녀니와 그럿치 아니 ᄒᆞ면 회당을 헐고 교도를 도륙 ᄒᆞ리니 ”; 「길홍박 쇼문」, 『독립신문』, 1898.12.9.

> 이라 ᄒᆞᄂᆞᆫ거슨 녀ᄌᆞ의 힝실을 말ᄒᆞᆷ이오 져쥬라 ᄒᆞᄂᆞᆫ거슨 ᄂᆞᆷ을 미워ᄒᆞ야 방ᄌᆞᄒᆞᄂᆞᆫ 악담이라 리화학당 녀 교인들이 하ᄂᆞ님의 계명을 직혀 졍졀의 덕힝이 잇스며 학문을 공부ᄒᆞ야 통달ᄒᆞᆫ 식견이 렬녀 젼 ᄂᆡ칙편에 어긔옴이 업시며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야 ᄌᆞ긔를 군축ᄒᆞ며 뮈워ᄒᆞᄂᆞᆫ 사ᄅᆞᆷᄭᆞ지 위ᄒᆞ야 하ᄂᆞ님ᄭᆡ 긔도 ᄒᆞ거ᄂᆞᆯ 김덕구의 장ᄉᆞ가 녀 교인의게 무삼 상관이 잇기로 져쥬 ᄒᆞᆯ리가 잇시리오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교당을 파쇄ᄒᆞ며 교도를 도륙 ᄒᆞ겟다 ᄒᆞ엿기로 우리ᄂᆞᆫ 인의의 갑쥬와 츙신의 방패와 셩신의 칼을 예비ᄒᆞ야 기ᄃᆞ린지 여러 날이로ᄃᆡ 쥰쥰ᄒᆞᆫ 부샹들이 기와ᄀᆞᆺ치 흣터지며 쥐와 ᄀᆞᆺ치 도망ᄒᆞ야 소식이 묘연ᄒᆞ니 엇지가련ᄒᆞᆫ 인ᄉᆡᆼ이 아니리오(…) 53)

이처럼 여성들이 개화, 계몽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권익이 신장되고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그에 대한 반동·위협세력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에게 내외법을 폐지하고 규중에만 갇혀있지 말고 교육을 받고 자립능력을 키우라는 주류 남성들의 외침은 언제나 '우리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들의 입지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혐오와 수치심(Hiding from Humanity)』을 쓴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지배 집단은 자신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로써 그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해 왔다고 한다.54) 너스바움이 분석한 바, 혐오에 담긴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 혐오의 중심적 대상은 인간에게 '오염 물질'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는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상기시킨다.55)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저열한 동물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하

53) 「논설」, 『제국신문』, 1898.12.14.
54)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35~37쪽.

기 위해 자신들을 동물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집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과 ‘저열한 동물’ 사이의 경계선이 만들어진다. 특권을 지닌 집단들은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보다 우월한 인간적 지위를 명백히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혐오의 단골 대상인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 계급 사람들과 같은 집단들은 항상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로 상상되었다.[56]

이러한 맥락 하에서 바로 ‘여성혐오’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남성들은 동물성, 오염, 유한성에 대한 공포를 부정 혹은 회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그 감정을 투영하여 배제하고 차별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학습됨으로써 남성들 내부의 결속(homosocial)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혐오는 오염, 침투에 대한 공포나 거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그 대상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낄 상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여성혐오를 젠더로서의 문학문화사 서술 방법론으로 삼는 이유이다. 즉 여성들이 어떤 위협적 존재로 부상할 때 남성주류사회는 그들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여성혐오라는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혐오’ 개념에는 여성의 ‘성장’과 이에 대한 ‘반동’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모두 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여성들도 분열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사치와 허영, 계급적 차별 등을 빌미로 찬양회 부인들을 비판하는 시선들 앞에서 부인회원들은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스스로를 검열하고 단속하는 태도를 보였다.[57]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데는 ‘여권통문’에서 보이

55) 위의 책, 185쪽.
56) 위의 책, 200~201쪽.
57)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앞의 글(2016.11), 3~45쪽 참조.

는 여성들의 자기혐오의 내면화도 일조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여성들은 여성들의 계몽을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여성들이 못나고 모자란 존재였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신소당과 윤정원의 글 역시 그러한 논리를 내포한 대목이 엿보였다.[58] 여성들의 '진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쉽고 명료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문화적 토대가 변화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성장에는 혼란과 주저함이 일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우에노치즈코[59]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호모소셜'한 남성들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혐오' 즉, 여성혐오에 빠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것은 남성들만이 여성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선각자 여성, 엘리트 여성, 여성작가들의 분열증적 감정으로 자기 혹은 타자화된 여성들을 혐오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우에노는 근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이라는 범주가 짊어진 역사적 여성 혐오의 모든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에 순응하거나 회피할 것인가[60], 아니면 그것과 맞서 싸울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갈 뿐이다. 전자 중에서 여자가 여성 혐오를 자기혐오로 경험하지 않고 '예외적 여자'가 되어 자기 이외의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여성 혐오를 전가하는 여성들이 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 하나는 특권적인 엘리트 여성, 즉 남자들로부터 '명예 남성'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여자'가 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라고 하는 범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여성

58) 위의 글, 38쪽, 42~44쪽에서 신소당, 윤정원의 글 분석 참조.
59)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60) "때때로 "나는 내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에 얽매여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고집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여성 혐오와의 대결을 줄곧 피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의 책, 158쪽.

으로서 가격 매겨지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추녀 전략'이 그것이다.[61] 여성들은 반드시 남성의 평가가 개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난다. '나는 저런(평범한) 여자들과 달라'라는 식의 '예외적 여자'가 되려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성이 여성 혐오를 자기혐오로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특권적 '예외'를 둠으로써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조는 온존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따라서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 혐오가 단순히 남성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질서와 가부장제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공모'함으로써 존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98~1910년 사이에 고군분투했던 여성들의 위치는 어디쯤이었을까? 그들은 남녀의 동등권을 주창하고 이를 위해 여성교육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돈을 모아 학교를 만들고, 여성단체를 조직해 연대를 꿈꾸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글과 말로 세상에 드러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분명 여성들이 보여준 근대화, 진보의 증거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직선적, 일방향적 발전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권통문'을 발표한 그 부인들, 선각자적 여성 논객인 신소당, 윤정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개화계몽에의 의지는 언제나 여성들에 대한 자기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끊임없는 남성들의 감시, 비판 앞에서 스스로를 검열, 단속해야했다.

그래도 분명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정치, 사회문제에 여성도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다. 그것은 여학교를 여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설립하거나 김덕구의 장례식과 같은 행사에서 가시화되었다. 여성들은 스스로 여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61) 위의 책, 252쪽.

역할을 수행해냈으며, 만민회가 주최하는 사회장(社會葬)에 참여하여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제문을 읽고, 찬미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여성들의 힘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아 재정난으로 중도 포기된 여학교가 여럿이었고, 김덕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보수단체(황국협회 보부상단)로부터 여성혐오적 발언과 함께 위협을 당해야 했다. 그래서 이화학당은 김덕구 장례식 참석 사실을 스스로 부인할 정도로 위축되기도 했고, 1905년부터 진행된 2차 여학교 설립운동은 남성들이 지도하고 여성들이 이를 따르는 여자교육회 같은 단체나 대한부인회, 대한여자흥학회 등처럼 친일 인사들이나 황실의 비호 아래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주도했다.

그러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다소 침체된 운동성은 다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국가의 위기, 구국의 절박함이라는 현실 앞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다시 '동지'로서 호명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보다 급한 공동의 과제가 있을 때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자신들과 동등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망국의 위기에 처한 '같은' 국민으로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여성들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그것이 국채보상 부인회 운동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리하여 「경고아부인동포라」나, 「탈환회취지서」 등에서는 남성들을 향해 '우리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근검절약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일에 공헌할 것을 맹세한다.

> 우리가함기녀자몸으로규문에쳐ᄒᆞ와삼죵지의에간셥ᄒᆞᆯ사무기업사오나 나라위ᄒᆞ난마음과빅셩된도리에냐엇지남녀가다르리요 듯ᄉᆞ오니국쵀를갑푸랴고이쳔만동포드리셕달간연초을ᄋᆞ니먹고 대전을구취헌다ᄒᆞ오니죡히사람으로흥감케ᄒᆞᆯ지요젼졍에아름다오미라그러ᄒᆞ오나부인은물논헌다니ᄃᆡ저여자넌나라빅셩이아니며화육중일물이안니요본인등은여ᄌᆞ에소쳐로일신소존이다만패

물등속이라ᄐᆡ산니혹등이를사냥치안니ᄒᆞ고ᄒᆞ해가가는물을기리지안니ᄒᆞ기로저그무로큰거슬도우나니유지ᄒᆞ신부인동포드른다소를물구ᄒᆞ고혈심의련ᄒᆞ와국쵀를쳥장ᄒᆞ시미쳔ᄆᆞ행심/졍미졍월십일일 발긔인에 ᄃᆡ구동샹남일동/정운갑모셔시 은지환일불두냥중/셔병규쳐정시 은중도일ᄀᆡ두냥듕(...)[62]

대져 ᄒᆞ나님씌션 내이신비 사ᄅᆞᆷ은 남녀가 일반이라 우리ᄂᆞᆫ 한국의 녀ᄌᆞ로 학문에 종ᄉᆞ치 못ᄒᆞ고 다만 방적에 골몰ᄒᆞ고 반ᄎᆞᆫ에 분쥬ᄒᆞ야 사람의 외무를 알지 못ᄒᆞ옵더니 근일에 들니ᄂᆞᆫ 말이 국채 일쳔ᄉᆞᆷᄇᆡᆨ만원에 전국 흥망이 겁고 못갑ᄂᆞᆫ데 잇다고 쪄드ᄂᆞᆫ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니(...)유지 신ᄉᆞ들이 쥬초를 긋친다 김반을 ᄒᆞᆫ다 여러 가지로 탈채ᄒᆞᆯ 방침을 연구ᄒᆞ야 젼국이 분울○오니 우리도 이쳔만 인구 중 ᄒᆞᆫ 사람이라 아득ᄒᆞᆫ 마음에 ᄉᆡᆼ각고 ᄉᆡᆼ각ᄒᆞ니 깃부고 깃부다 국채 일쳔ᄉᆞᆷᄇᆡᆨ만원에 슈ᄂᆞᆫ 얼마나 만은지 측량ᄒᆞ기 어렵ᄉᆞ오니 갑흘 방침은 우리 동포에 마암 가온ᄃᆡ 잇ᄂᆞᆫ 쥴 알고 깃붐을 측량치 못ᄒᆞ옵내다

대범 이쳔만 중 녀ᄌᆞ가 일쳔만이오 일쳔만 중에 지환잇ᄂᆞᆫ 이가 반은 남을 터이오니 지환 ᄆᆡ쌍예 이원식만 셈호고 보면 일쳔만원이 녀닌 슈중에 잇다 ᄒᆞᆯ 슈 잇슴내다 도로혀 지환에 리히을 ᄉᆡᆼ갹ᄒᆞ여 봅시다 ᄃᆡ뎌 그물에 물건되 거시니 긔ᄒᆞᆫ에 ᄉᆞᆼ관도 업고 다만 손가락을 쇽박할 것ᄲᆞᆫ이오 녀인의 사랑ᄒᆞᄂᆞᆫ ᄇᆡ나 ᄌᆞ녀의야 비할 손가 우리 나라 기ᄇᆡ년 풍긔가 닐용ᄉᆞ물농 소용 업ᄂᆞᆫ 거슬 이러릇 ᄉᆞ랑ᄒᆞᄂᆞᆫ 거ᄉᆞ 무슴 닐인지 알 지 못ᄒᆞ엿더니 오날날 이 중ᄃᆡᄒᆞᆫ ᄉᆞ를 셩취할려에 비함이로다 이렷틋시 국채를 갑고 보면 국권만 회뷱할ᄲᆞᆫ 아니라 우리 여ᄌᆞ의 홈○ 셰샹에 뎐파ᄒᆞ야 남녀 동등권을 ᄎᆞᆺ슬 거시니(...)[63]

동시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글을 실을 수 있는 회지(會誌)를 만드는 데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신채호를 위시한 신민회 남성들이 만든 『가정잡지』를 읽던 여성들이,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 『녀자지남』

62) 「경고아부인동포라」, 『大韓每日申報』, 1907.3.8.
63) 「탈환회취지셔」, 『大韓每日申報』, 1907.4.23.

에 글을 쓰고, 1908년에는 마침내 여성들의 힘으로 『자선부인회 잡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특히 『자선부인회 잡지』는 여성들이 논설뿐 아니라 문학 작품까지 선보여 종합지의 구색을 나름 갖추었으며 비록 속간(續刊)되지는 못하였으나 여성들의 글과 그림을 싣고자 했던 기획을 가졌던 점 등으로 볼 때 1910년대에 출현하는 여성 잡지들의 기원이 될 만하다 할 것이다.

근대 여성의 역사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흔들림 없이 반복된 것이 아니다. 남성이라는 지배세력에게 저항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확산되며, 이 속에서 다시 여성들 내부의 분열(여성혐오의 공모/저항 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성들 중에 이 여성혐오에 맞서 싸우려는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남성중심사회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 이것이 근대의 여성사이다. 그렇게 직선이 아닌 나선형의 구조로 여성의 문학문화사는 발전, 진보되어왔다. 여성혐오의 구조는 쉽게 탈피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지금-여기의 여성 현실이 190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구조가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 근거는 여성혐오의 발생 이유에 답이 있다. 남성들이 여성혐오를 만들어내게 된 심리구조적 배경은 '불안'과 '공포'이다. 여성혐오는 지배세력인 남성이 여성들의 성장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낄 때 더 강하게 발현된다. 여성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즉 여성들이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 남성들은 여성을 더 강하게 혐오한다. 따라서 여성혐오의 역사는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측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장' 및 '저항'(과 아울러 '공모')의 측면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문학문화사를 기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이 발표된 이후의 여성문학문화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여성혐오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직 글쓰기의 기회와 방법이 주어지기 어려웠던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신문과 잡지, 소설 등을 '읽는' 일은 여성들의 문학문화 영역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첫 단계였다. 교육제도의 확대와 미디어의 확장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체득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의 문학·문화 활동의 두 번째 국면인 글쓰기의 문화사의 출발점이다. 여권통문을 발표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학교 설립, 구국활동, 여성 잡지 발간 등의 사회 참여활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들의 실천적 활동이 있었기에 한국근대여성의 문학과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여성문학문화사에 있어서 '진보'의 과정이라는 해석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글쓰기와 직접행동은 한편으론 칭송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거부감이나 편견을 감내해야 했다. 여성들의 의식 성장과 사회 참여의 확대는 개화된 남성들이 원하던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주류-남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침범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여성에 대한 도덕성 비판, 성차별적 비하, 성적 대상화 등의 형태로 표출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

혐오'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개화, 계몽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권익이 신장되고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그에 대한 반동・위협세력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라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여성들은 다시 남성과 동등한 국민이 될 기회를 찾았다.

근대 여성의 역사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흔들림 없이 반복된 것이 아니다. 남성이라는 지배세력에게 저항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확산되며, 이 속에서 다시 여성들 내부의 분열(여성혐오의 공모/저항 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성들 중에 이 여성혐오에 맞서 싸우려는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남성중심사회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 이것이 근대의 여성사이다. 그렇게 직선이 아닌 나선형의 구조로 여성의 문학문화사는 발전, 진보되어왔다.

국채보상운동 이후 진행된 여성문학문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차후의 논문에서 이어나갈 것이다. 본 연구자의 지향점은 한국근대문학문화사를 젠더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기술해보는 것이어서 한 편의 논문으로 완결성을 띠기 어려운 난점이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계속 이어질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 기술을 통해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2017년 2월 16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독립신문』, 『뎨국신문』, 『대한민일신보』, 『자선부인회 잡지』

박용옥, 『한국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2002.12.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신소당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 제11권, 국문학회, 2004.6.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8집, 2004.6.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3.

이영아,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제26권, 2011.12.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4호, 2016.11.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III)-1900년대 문학문화의 ‘호모소셜리티’와 여성혐오」, 『어문연구』 제173호, 2017.3.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혜안, 2009.

上野千鶴子,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平田由美, 『여성표현의 일본근대사』, 임경화 역, 소명출판, 2008.

Martha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Abstract

Literature and culture history of ′Misogyny′(II) in 1898 ~ 1910

Lee, Young-Ah

This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the work to describe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culture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literature and culture history have developed since September 1, 1898, after the ‘Women′s Right Declaration(女權通文)’ through the concept of ‘misogyny’.

For women in the early modern age, where the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writing were not yet to be given, “reading” newspapers, magazines, and novels was the first step in enabling women to enter the field of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media, women were able to learn what writing is by learning letters and to read other people′s writing. In this process, women became able to announce ‘Women′s Right Declaration’ on September 1, 1898, which is Korea′s first women′s right manifesto. Since then, women′s writing has been linked to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girls′ schools, national activities, and the publication of women′s magazines. Because of their practical activities, literature and culture of Korean modern women could be started.

It is easy to interpret that this series of movements is a process

of ‘progress’ in th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and culture. However, these women's writing and direct actions are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cultural structure of “misogyny”. This is because the more women grew up to the blooming and the enlightenment, the more their reactions and threats increased. However,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crisis, women have gradually changed the structure of misogyny, seeking opportunities to become equal citizens with men again.

Key Words : misogyny, literature and culture history, Korean modern women's literature, gender, women's writing